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강경림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서촌여섯째>

개원5주년기념. 미타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복(福) 중에 인연 복(福)이 제일이다.
- 일시 : 불기2550(2006)년 3월 18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미타스님 약력]

- ▶ 1962년 통도사에서 김성능스님께 4교과 배우고
- ▶ 1966년 오대산 수도원에서 김탄허스님께 대교과 및 도양학을 배움
- ▶ 1966년 해인사에서 김자운스님께 구족계를 받음
- ▶ 1973년 조계종 수원포교당 주지
- ▶ 1994년 미국 필라델피아 원각사 주지
- ▶ 1997년 미국 뉴욕 불국사 제2대 주지 및 뉴욕 20개국 봉축 국제 퍼레이드 집행위원장 역임
- ▶ 현재 이천 미타사 주지스님
- ▶ 저서
<나무묘법연화경 법요집> <다도와 재담>외 다수



3월 사찰환경 답사

[동화사, 팔공산 갯바위]

- 일 시 : 2006년 3월 19일(일요일)
- 출발지 : 오전7시 30분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2/3월 초

불기 2550년 출가, 열반절을 맞으며 인도네시아 발리, 족자카르타 성지 순례(I)

경기불교문화원장/우양금당 진철희



길에서 태어나서 고뇌하시고, 길에서 수행하며, 도를 이루시고, 길에서 법을 가르치고 열반하신 부처님을 생각하며, 계속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순례코자 합니다.

아빠 카바르(Apa kabar)?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행 중에 현지 가이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쓰는 말이다. 한국어와 연상시키면 쉽게 잊혀지지 않아 인도네시아 여행 후 한국에 와서도 "이브자리 카바르(evezary kabar?)" 와 함께 여행 도반들끼리 만날 때마다 정담을 나누고 있는 언어이다. 사실 이번 인도네시아 성지순례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라 원래는 터키, 그리스, 이집트의 지중해 여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에 의해 못 가게 되어 그 일원들이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시간상으로 촉박하여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마니아 몇 명이 의기투합으로 이루어졌기에 연락이 없되어 함께 동참하지 못한 도반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17,508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도서국으로 국토 면적이 190만Km²에 달한다.

지리적 위치는 적도를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동서로는 약 5,000km, 남북으로는 2,000km에 걸쳐서 깊고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육지면적에 내해면적은 약 850만km² 되어 미국 대륙과 엇비슷하며, 인구는 총 2억 2천만 명(2004년)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대국이다.

무신론자가 거의 없으며 전체 국민의 89%가 이슬람교도이며, 5.3% 기독교, 2.5% 천주교, 2.0% 힌두교, 1.0% 불교이며, 최근에는 유교도 국민 종교로 인정하고 음력설도 종교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며, 우리 일행들에게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에서 환영 꽃목걸이를 달아주면서, 자기나라 자랑을 하고 있는 현지 가이드 Arianto의 설명이다.

각 나라들은 여행하다 보면 처음 만난 가이드의 행동에 따라 그 나라의 첫인상이 다가오는데, Arianto는 농담을 좋아하는 전통적인 인도네시아인답게 밝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 표어인 "다양성의 통일성" 답게 세계 최대 섬나라에 300여 종족이 공존하는 나라이므로 언어와 문화가 다양하여 인도네시아에 한번 매력에 들면, 계속 이 나라만을 고집하는 여행객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발리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현대식 호텔 그랜드 발리 비치에 여장을 풀 것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3시가 넘어서였다.

그랜드 비치 호텔 앞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장인 가루다는 발리 힌두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독수리를 닮은 상상의 새이다. 가루다는 하계에 사는 두 마리의 뱀에게 잡혀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달아나 천계로 날아 올라가 영원의 생명수를 마시는 일에 성공하여, 신들과 같은 능력을 얻어 생명을 주관하는 비슈누신을 타고 천계와 지상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도 인도네시아에서 KAL을 전세를 내어 타고 온 비행기의 이름도 가루나 항공이며, 내일 관람하는 발리댄스에 도 등장한다고 한다.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8)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저 요새와 같이 튼튼하게 만들어, 지혜의 무기로 마라를 상대로 싸워라. 승리를 얻은 후에는 이 포로를 잘 감시하라, 그리고 한 눈을 팔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

- 법구경 40 -

Knowing that this body is fragile like an earthen jar,
making one's mind secure like a fortified town,
one should fight Mara with the weapon of knowledge.
One should still continue to guard one's mind,
and feel no attachment to that which has been gained.

- The DhammaPada 40 -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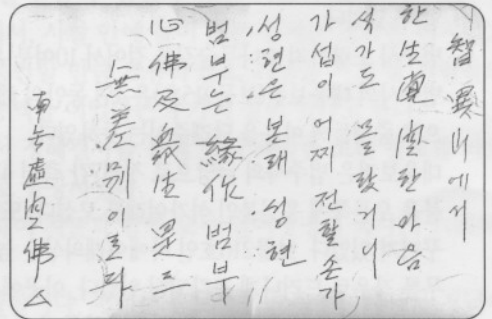


이 뭐 꼬?

구담스님



요즘 세상이 고요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럽다고 말씀하신 분은 불법(佛法)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치우쳤기 때문에 생각이 삳뒀었고, 고요하다고 하여도 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때에 나무아미타불 하면 염불 학자, 화두를 챙기면 화두학자, 뭐라고 말할까? 하는 사람은 분별 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전혀 동요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냉정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일, 이 공부는 전혀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10이면 의정이 10이고 의정이 10이면 깨달음이 10입니다.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이고, 도중에 최고의 道는 팔정도입니다.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불조(佛祖)께서 한량 없는 법문과 무량묘의를 말씀해 두셨습니다. 여기에 혀를 잘못 굴리면 베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주제는 이뭐꼬? 입니다.



승(僧)이 회양산 봉암사에서 살 때 생각해 보니 천지를 둘러보아도 이뭐꼬? 이것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뭐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석가, 달마도 대답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뭐꼬? 를 묻는다면 회양산에 비가 오니 산색이 새롭고 물이 고이더라. 참으로 할 말이 없는데 말을 만들어서 하려니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대안스님은 백장스님께 절을 하고 물으니 '제가 부처를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다'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시종일관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보림(保任)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소를 기르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며 곡식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하라' 이 말을 듣고 대안스님은 종지를 깨닫고 다시는 마음 밖의 대상을 좇으며 구하지 않았습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 종일 마음을 쓰면서도 모르고 씩니다. 그러니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선남자야! 예! 무엇이 대답을 하였습니까? 예! 대답할 때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답하고 나니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無我)를 알아야 합니다. 무아를 알기 전에는 편히 살수 없습니다.

불자의 목표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에 활기가 없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다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 잘 사는 것이 목표일 줄 알고 매진하다가 막상 목표에 도달하면 허탈해지기 일쑤입니다. 행복은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해 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불조께서 본래부터 일체중생이 부처라 하였는데 나는 왜 날마다 업식놀음, 중생놀음만 하고 사느냐?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忿心(분심)이 일어나고 본래 부처를 회복하여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수행정진 하여서 날마다 향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절에 다녀보아야 남의 다리만 굽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밥을 먹고, 무엇이 옷을 입고, 부모님이 주신 산 송장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깨우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당달봉사입니다. 눈은 뜨고 살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에 다니는 불자들에게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물으면 더러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고 잘 난체 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알기나 하는지? 그래도 불교를 바로 배운 불자라면 삼보를 믿고 산다고 하여야 합니다.

삼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한 가지 만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이 불(佛) 즉 부처입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입니다. 절대 평등한 것이 법(法)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처님 법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부처님 법 말고 다른 법에는 절대 평등이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절대평등하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겸소한 생활이 승(僧)으로 즉 일체 화합대중이 승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이 즐겁습니다.

사람마다 이 세 가지 보배를 지니고 있으나 꺼내어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삼보(三寶)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삼보를 믿고 꺼내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이
불교

가마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법주사 사찰 답사가: 무심천의 전설

사찰답사단원/소프라노 秀藝 김혜은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 그리고 올해 병술년 새해 첫 문화원사찰답사로 충북보은군의 속리산에 위치한 천년 고찰인 대한불교조계종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와 무심천변을 끼고 유유했던 역사적 전설을 간직한 용화사 그리고 청주의 진산(鎭山)격인 우암산(牛岩山)에 위치한 관음도량인 관음사를 다녀왔다.

깊은 겨울이었지만 비가 촉촉이 내렸고, 초봄의 따스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었던 날씨였고, 휴일이었지만 길도 막힘이 없이 법주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법주사 도량까지 소나무숲길을 걸어서 10여분 은은한 솔잎 향과 수려한 속리산의 산세가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법주사의 대웅보전(보물915호)은 4년 동안의 해체보수불사를 마쳤고, 1990년 조성된 법주사의 상징인 금동미륵불(높이 약25m)은 웅장함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듯하였다.

대웅보전은 법주사의 금당으로 정면7칸 측면 4칸의 중층(2층)구조로 중앙에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그 왼쪽에 보신불인 노사나불을 오른쪽에 응신불인 석가여래를 모셨다. 또한 1990년에 조성된 금동미륵불의 8m높이의 기단 석 밑에는 도솔천을 표현한 용화전으로 꾸며져 있었다. 보물216호인 마애여래의상은 높이가 6m나 되는 큼직한 바위의 의자에 걸터앉은 여래를 부조로 새겼다. 연화좌의 연꽃이 무릎 좌우로 드러나게 조각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외국에서 온 스님한분과 우리나라 참배객 몇 명이 삼배를 하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었다. 나도 여래 앞에 3배를 하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부처님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동 미륵불주위를 3번 돌면서 부처님을 생 각해보았다.

법주사에서의 참배 후 따스한 점심공양을 하고 법주사를 나섰다.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석가세존입멸후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오시어 중생을 교화한다는 미륵신앙이 살아있는 천년 고찰이었다.

우리일행은 무심천이 유유히 흐르고 전설을 간직한 용화사로 향했다. 광무5년(1901년)나라 안에는 기근이 심하고, 국력이 쇠하여 민심이 흉흉한 때에 고종의 총애를 받던 엄비(嚴妃)가 꿈에 천지가 요동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오색영롱한 무지개와 함께 미륵이 일곱 선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나서, "우리는 청주에 있는 석불인데 몸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니 구하여 큰절을 지어 달라. 우리에게 대하여는 청주군 지주에게 물어 보아라." 고한 다음 서쪽하늘로 사라졌다. 엄비는 이 사실을 고종에게 고하여 어명으로 청주군 이회복 군수에게 조사하게 하였다. 그런데 청주군 이회복 군수도 같은 시각에 같은 꿈을 꾸었다. 3일후 어명을 받은 이회복 군수는 자신의 꿈이 엄비의 꿈과 동일한 것이 필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조사를 하니 무심천 늪에 석불이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늪의 물을 퍼내니 7존의 석불이 있었다. 엄비는 그곳에 15칸 규모의 큰 사찰을 지었고 용화사(龍華寺)라하고 7존불을 이곳에 모셨다. 미륵 석불상의 바로 뒷면에 나한상이 모셔져있는데 무척 정교하고 미륵 칠존불(국가보물 제985호1989.4.10지정)의 위용 또한 당당하고 전설처럼 신묘한 소원성취와 안가태평의 효험이 있는 곳으로 참배객의 마음을 달래주는 도량이라 한다. 용화사를 나올 때 무심천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간 사찰은 청주의 진산(鎭山)격인 우암산(牛岩山) 서남쪽 암벽 아래 위치하고, 흥덕사지 뒷산을 안산(案山)으로 하고 무심천 물줄기를 멀리 바라보며 위치한 관음도량 관음사에 들렀다.

현진주지스님의 친절하신 사찰에 대한 해설과 도량에서 천진난만하게 탑돌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정겨웠다.

이 절은 고려 초기에 창건된 계향사(桂香寺)의 옛 절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옛 모습을 복원하고 수행과 포교중심의 사찰로 거듭나고 어린 이포교에도 앞장서신다는 주지스님의 말씀을 뒤로하며 나오는데 무심천에 석양이 지며 노을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사바세계란 고통을 감수하며 늘 무엇인가를 참고 감수해야하는 것이 사바세계의 뉘미라고 한다.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열심히 생활하리라 다짐하면서 사찰답사를 마친다.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장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기초반) - 3월 29일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기초반/중급반)
- 지도강사 - 홍인숙



사찰답사

삼보사찰을 다녀와서...

사찰답사단원/본원 간사 강경림

맑고 푸르른 하늘이었다.

처음으로 가는 삼보사찰순례, -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는 기대로 가득 차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맑고 푸르렀던 하늘은 기분도 상쾌하게 만들었고, 삼보사찰순례에 대한 기대로 부풀게 만들었다.

몇 번 참가하였던 사찰답사이지만, 이번은 삼보사찰순례라는 의미가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었나보다. 5시간이 넘는 버스 여행에서 끝에 만난 송광사는 여는 다른 이름이 있는 사찰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조금 이름이 있다하는 절은 입구에서부터 기념품 가게와 여러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어서, 사찰 안에 들어 가는 길에는 조금은 어지럽고 시끄럽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러나 송광사는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을 허용안할 만큼 조용하였고, 기념품 가게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가게들은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요함만이 흐르는 송광사는 승맥을 이었다는 두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전 고려 때 보조 국사(普照國師 知訥)스님께서 정혜결사를 통해 당시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 잡아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였는데 그 근본도량(根本道場)이 바로 송광사였다.

다른 하나는 지눌 스님의 뒤를 이어 송광사에서 열다섯명의 국사들이 출현하여 지눌과 함께 모두 열여섯명의 국사(十六國師)가 나와 한국 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광사야말로 한국 불교 전통의 산실이요 또 그 전통을 잇고 있는 중요한 사찰이다. 이러한 송보사찰인 송광사에서의 저녁예불, 영진스님의 법문, 철야기도, 새벽예불을 하면서 세상일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시간이었다. 아쉬운 것은 내가 철야기도 때 천배도 다 못하고 포기한 나에 대한 나약함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송광사를 출발하여 통도사로 향하였다. 통도사는 이 절이 위치한 산의 모습이 부처가 설법하던 인도 영취산의 모습과 통하므로 통도사라 이름졌고(此山之形通於印度靈鷲山形), 또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 계단(戒壇)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했으며(爲僧者通而度之), 모든 진리를 회통(會通)하여 일체중생을 제도(濟道)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처의 진신사리가 안치하여 오늘날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보사찰인 통도사에서는 스님의 안대로 수박 곱창기가 아니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답사하여 우리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구석구석 빠짐없이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지은 건축문화에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던 기억에 남을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던 해인사는 해인사는 신라시대에 그 도도한 화엄종의 정신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선양한다는 기치 아래, 이른 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세워진 가람이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화엄경은 4세기 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 성립된 대승 경전의 최고봉으로서, 그 본디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며 동양문화의 정수라고 일컬어진다. 이 경전에 해인삼매(海印三昧)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해인사 이름은 바로 이 '해인삼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해인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대장경이 세계 문화 유산인 줄 알았으나, 법보 사찰 해인사의 상징인 고려대장경 판을 봉안한 건물, 판전건물이 세계 문화 유산이었다.

이 판전 건물은 우리 조상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경판을 잘 봉안할 수 있도록 처리한 세계적으로 뛰어난 건축양식이다.

해인사에서는 시간에 쫓겨 답사를 잘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우리들은 해인사에서의 저녁예불을 끝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수원으로 향했다. 경기도 불교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초발심자경문 강좌안내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월9일 개강)
- 내용 : 초발심자경문 • 기간 : 4개월 과정
- 수강료 : 120,000원
- 강사 : 지묵스님



건강에 대하여

고칠성(경락 강사)

우리의 소망은 내일 세상을 떠날지라도 오늘까지 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건강의 조건인지는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막연한 바람으로 언제까지나 지금의 건강함이 지속되고 또는 지금의 불편함이 나의 노력 없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몸은 진아(眞我)가 아니고 거짓 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인 진아(眞我)를 깨워 거짓 나인 몸을 잘 길들여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쉽 없이 반복된 훈련으로 연습을 하듯이 몸나도 계속적인 반복 훈련으로 진아(眞我), 즉 참나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 하였을 때, 건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건강이란, 몸도 건강해야 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했을 때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려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즉 자연에 순응해야지 역행해서는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생존에 필수조건인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함에 있어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될 수 있으면 배제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어린아이들의 호흡법인 복식호흡을 하고, 먹는 것도 제 철에 생명력이 왕성했을 때 채취한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인공적으로 대량생산한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보다 샘물처럼 깨끗한 것을 마시고, 잠자는 것도 어두워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배설도 인위적인 배설보다 자연스러운 배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나인 몸나를 참나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을 위한 생활보다 참나를 위한 생활을 할 때 완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나를 위하면 허물만 생기지만, 참나를 위한 생활을 하면 모든 만물에 유익함을 줍니다. 이런 생활이 자연에 순응한 생활이고, 이런 생활을 반복 연습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질병도 모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이나 에이즈 또 더 많은 이름의 병들도 모두 자연에 역행하여 생긴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연의 마음을 가진다면 참나는 깨어나고, 몸나는 활발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함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기왕에 축복받을 것이면 완전 건강을 가지고 살다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불교

1.2월달 후원회비 내주신분들(1월1일~3월1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저, 진철희, 염규용, 이병일, 조병희, 배민한, 심화식, 진기홍, 조남종, 이윤철, 정현숙, 차용희, 이상님, 정경화, 서의호, 김미정, 박영희,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이기원, 어윤식, 정재안, 정효진, 신윤식, 박홍근, 구광국, 김기현, 김말수, 김순옥, 김영동, 김영희, 김용필, 김은주, 김준옥, 김준호, 민준홍, 박경아, 박선현, 박청용, 송경주, 송호윤, 안영찬, 양준영, 윤영무, 이기순, 이남덕, 이대곤, 이상범, 이선우, 이영옥, 이임성, 이태갑, 이태순, 이학운, 장옥훈, 장용집, 권중서, 조명숙, 조창윤, 진상범, 진주범, 최명길, 최정자, 홍인숙, 김혜자, 최숙련, 이사현, 김명옥, 김병옥, 조권형, 이수현, 장명순, 강기순, 최귀미, 손용식, 주인수, 용희순, 이수교

기본교리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3월 29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등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50,000원 • 강사 : 포교사 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 백인에게 듣는다(서른네 번째)



불기2549(2006)년 1월 21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지묵스님의 “성도의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었습니다.

● 백인에게 듣는다(서른다섯 번째)



불기2549(2006)년 2월 18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구담스님의 “이 뭇꼬”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었습니다.

● 1월 사찰답사



1월 사찰답사는 법주사, 용화사, 관음사였습니다. 미륵신앙의 도량인 법주사에서 웅장한 미륵대불과 팔상전 외의 문화재를 보면서 우리 불교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화사에서 그 위용이 당당한 미륵 칠존불은 우리 답사반의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신다는 주지스님의 말씀과 함께 탑돌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뒤로하고 사찰답사를 마쳤습니다.

● 2월 삼보사찰순례



2월 사찰답사는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였습니다. 승보사찰인 송광사,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불교문화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 교육 강좌

▶ 상반기 강좌

- ♣ 경전강좌 지묵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경전강좌가 3월 9일(목) 오후 7시에 개강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기초교리와 불교미술의 이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초교리는 수요일 오후 7시(3월 29일 개강), 불교미술의 이해는 금요일 오후 7시(3월 30일 개강)에 수업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수지침과 노래교실(찬불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지침은 수요일 오후 4시(3월 29일 개강), 노래 교실(찬불가)은 화요일 오후 1시(4월 4일 개강)에 수업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행사안내

-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제18회 뉴욕 국제 법요식 및 제8회 국제 불교인의 밤 참가단 모집
- 일 시 : 2006년 5월 14일~5월23일(9박10일)
- 일 정 : 인천->뉴욕->워싱턴->버팔로->킹스턴->뉴욕->인 천
- 주요 일정 : 국제 불교인의 밤 참가, 워싱턴, 나이가가라, 킹스톤, 뉴욕 관광, 국제 봉축 법요식 및 제등 행렬 참가
- 마감일 : 3월31일(선착순 20명)-동참금259만원(비자비별도)

▶ 제5회 정기총회 개최

일 시 : 2006년 3월 19일(토) 17시

- 안 건 : 1) 임원 선출
- 2) 2005년 회계결산 보고
- 3) 2006년 예산안 승인
- 4) 기타안건

♣ 출가, 열반절 108배 정진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출가, 열반절을 맞아 매일 아침 108배 정진기도를 진행한다.

● 교계소식

♣ 불교생명윤리위 출범

미산스님 등 10명 위촉...자문위원회도 곧 구성
불교생명윤리 연구위원회가 지난 2일 위촉식을 갖고 공식 발족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이 날 미산스님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등 10명의 연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 용주사 주지 정호근스님 취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정호(正乎)스님은 3월 3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임명장을 받고 3월 13일 조계종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취임한다.

♣ 4월20일 서울시청 광장 장엄등 켜

4월20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환하게 밝혀지는 봉축 장엄등(燈)이 삼라만상을 깨운다. 장엄등이 불을 뿜으면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경회루까지 일제히 불길이 번진다. 불기 2550년 “부처님이 오셨다.”

천진한 어린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고 했다. 올해 연등축제 메인테마는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다.

2006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6년 3월~5월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29 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4주 2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지묵스님	30명	12주 120,000원	초발심자경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9 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30 개강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4/4 개강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120,000)	생활요가(주2회) 임산부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30분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29 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29 개강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초급)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이영준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22 개강
	경락	고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미타스님	100명	무료	복(福)중에 인연 복(福)이 제일이다	3월 18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동화사, 팔공산 갯바위	3월 19일 오전 7시30분 출발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재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